

민간공원 특례사업
직권남용 등 의혹

광주시 간부공무원 보석 '기각'

내년 1월8일 재판서 증거목록·증인 결정 예정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전 간부공무원의 보석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해 보석을 기각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 등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A 전 국장은 지난달 1일 구속된 후 같은달 1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 전 국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련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 전 국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A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찬바람 불 땀 대구탕 한 그릇 16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 수협위판장에서 상인이 제철 생선인 대구를 진열하고 있다. 대구는 3만원~3만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증거목록이나 증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찰서 연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8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 3차래, 광주도시공사 1차래,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봉우 기자

중기중앙회-한국노총 'TF' 만든다...대기업 甲질 공동 실태조사

공동협업체 설치하고 공동 실태조사·연구 등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중기중앙회-한국노총 산하에 공동 태스크포스(TF·공동협업체)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공동연구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나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정착을 위한 공동사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더

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김 회장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제안했던 '노·사 상생협력 방안'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우선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양 기관의 공동사업을 주관할 TF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산하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기준 총 3571개 사업장으로 구성된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다. 이 중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1977개로 55.4%에 달한다. 50인 미만 사

중기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019. 12. 16(월)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업장 1127개(31.6%)까지 더하면 기업 종사자다. 87%의 조합원(3104개사)이 중소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단신

화순 계란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16일 오후 12시47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계란공장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오후 1시쯤 초기진화를 마치고 진화를 정리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화관서 술마시고 고성...60대 업무방해로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영화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영화관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등산을 위해 전북 순창에서 지인들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가 영화관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먹고, 지인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란을 피워 일부 관람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편을 호소했고 영화관 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해경, 고의로 어획량 축소 기재 中 어선 2척 나포

신안군 흥도 해상에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3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5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5톤, 승선원 16명)와 B호(215톤, 승선원 15명)를 경제수역어업규제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우리해역에 진입해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총(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1만952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00kg만 기록해 1만452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실제로 잡은 어획량을 모두 보고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고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무면허 러시아인 차량에 공사장 작업자 2명 사망

무면허 러시아인이 몰던 차에 교통통제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쯤 목포시 용당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1차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조선족 B씨(67)와 C씨(44)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3시간쯤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인의 차를 몰다가 교통통제 중이던 B씨와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